

“주말은 참 좋은데…” 남구 스트리트 푸드존 ‘온도차’

트리 등 조형물 연말 분위기 물씬
붕어빵·호두과자 겨울먹거리 인기
금·토 반짝 대목…화·목 한산 ‘대비’
상인들 “평일 활성화 대책 필요”

“행사가 있거나 주말은 괜찮은데, 다른 요일은 손님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다들 고민이 많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8시께 광주 남구 백운광장 스트리트 푸드존은 영화권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고 먹거리를 찾아 온 시민들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가 지났지만, 점포가 늘어선 거리 곳곳에는 트리와 함께 형형색색의 종, 별, 리본 등의 장식이 둘러져 있고 건물들을 연결하는 전선에 달린 전구들도 반짝거리며 연말 분위기를 물씬 느끼었다.

다양한 종류의 먹거리 중 단연 인기가 높았던 건 겨울철 간식으로 꼽히는 붕어빵과 호두과자였다. 몇몇 점포는 “벌써 다 팔렸다”며 손님들을 돌려보낼 정도였다.



지난 주말인 27일 오후 8시께 광주 남구 백운광장 스트리트 푸드존은 영화권의 추운 날씨에도 먹거리를 찾아 온 손님들로 북적였다(왼쪽). 반면 다음날인 28일 오후 7시께는 눈에 띄게 한산한 모습이었다.



반면 다음날인 28일 오후 7시께는 눈에 띄게 한산한 모습이었다(오른쪽). /서형우 기자

겨울철 간식만큼은 아니었지만, 족발이나 큐브 스테이크 등을 판매하는 점포 역시 손님맞이에 분주했다. 다만 이 같은 호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상인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정상호 백운광장 상인회 대표는 “평일 장사가 녹록지 않아 주말 매출 의존도가 큰데, 이마저도 기대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28일 오후 7시께 다시 찾은 백운광장 스트리트 푸드존의 먹거리 점포 모두 영업 중

이었으나, 전날과 달리 한산했다. 길을 따라 쪽 늘어선 야외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는 이들은 물론이고 먹거리를 사기 위해 점포 앞에 서 있는 사람도 드물었다. 기억 없는 손님을 계속 기다리느니 일찍 문을 닫을 법도 했지만 그럴 순 없다는 게 상인들의 전언이다.

스트리트 푸드존 입점 조건을 따라 월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문을 열어야 하고 정해진 영업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월1일 남구 스트리트 푸드존에 입점한 점포들의 필수 운영 시간은 오후 5~10시였는데, 이번 달부터 내년 2월까지 동계 기간을 맞아 오후 4~9시로 조정됐다.

남구는 이를 지키지 않은 점포들에 대해서 주의·경고 처분을 내리며 불이행이 반복될 경우 퇴점 조치를 내린다.

이러한 조치는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이나, 일부 상인들은 손님이 없을 때도 드는 고

정 비용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업주는 “여름은 해가 진 후 더위가 좀 덜하다며 찾아오는 손님이 있지만, 겨울엔 평일 저녁 손님을 보는 게 드물다”며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영업 시간을 강제할 게 아니라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상호 대표는 “행사가 주로 있는 금·토는 사람들이 몰리고 반응도 좋다”면서도 “같은 주말인데 일요일은 차이가 큰 편이고 평일은 손님이 더 없어 어떻게 사람들을 모아야 할지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남구 관계자는 “들쭉날쭉한 매출로 인해 상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다”며 “충분한 소통과 대책 마련을 통해 스트리트 푸드존이 남구의 명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 백운광장 스트리트 푸드존은 외식·문화 융합형 공간으로 2022년 8월31일 개소했다. 현재 총점포 40개는 음식점 20곳, 문화·예술 6곳, 관리동 9곳에 공실 5곳이다. /서형우 기자

‘오월 어머니’ 안성례 초대 관장 영면

발인 전 예식 유가족 등 50여명 참석
5·18민주묘지 1묘역 4구역 40번 안장

5·18민주화운동 당시에는 시민들을 치료하고, 이후에는 오월 정신 계승을 위해 힘쓴 안성례 오월어머니집 초대 관장이 영면했다.

30일 오전 10시30분 광주 서구 매월동 천지장례식장 영결식장에서는 안 관장의 장례 예식이 엄수됐다.

국화로 장식된 빈소 앞에 모여 앉은 유가족 등 50여명은 예식 시작 전부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고인을 추모했다.

장례 예식은 고인이 생전 몸담았던 광주고백교회의 황범현 목사가 집례했다.

예식이 시작되자 영결식장에선 기도 소리와 함께 흐느끼는 소리가 이어졌다.

조규성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장과 박상규 전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은 각각 기도와 말씀 봉독을 통해 고인의 삶을 기렸고, 참석자들은 빈소 앞에 놓인 안 관장의 관 앞에 차례로 국화를 올리며 애도했다.

예식 내내 눈시울을 붉혔던 유가족들은 안 관장의 관이 운구차에 담기고 영락공원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눈물을 흘렸다.



30일 오전 광주 서구 천지장례식장에서 안성례 오월어머니집 초대 관장의 발인식이 엄수됐다. 안 초대 관장은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됐다. /이연상 기자

운구차가 출발한 뒤 유가족들은 장례버스에 올라 광주 북구 효령동 영락공원으로 이동했고 오후 4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안장식을 가졌다.

안관장이안장된묘소는1묘역4구역40번이다.

한편 안성례 관장은 지난 28일 향년 87세로 별세했다.

1938년 함평에서 태어난 안 관장은 5·18당시 광주기독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며 계엄군의 총

칼에 다친 시민들을 치료하는 데 헌신했다.

남편인 고(故) 명노근 전남대학교 영문과 명예교수가 5·18 주동자로 몰려 구속되자 서울 상경 투쟁과 석방 운동에 나서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구속자가족협의회 대표로 활동하며 오월의 진실을 알리는 데 주력했고, 광주 시의원에 당선된 뒤에는 5·18 광주문제특위 등을 통해 관련 현안 해결에 나섰다. /이연상 기자

“장애인단체 이사장이 택시 영업” 고발장

광주 서부경찰, 검직 제한 등 수사

광주 지역 한 장애인단체 이사장에 대한 보조금 집행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광주 모 자치구 장애인협회 이사장 A씨를 상대로 사기와 업무상 횡령·배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A씨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리책임자임에도 근무시간 중 협회를 이탈해 개인택시 영업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 지침에 따

르면 관리책임자는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 시간 내 검직 행위는 제한된다.

고발인은 A씨가 약 3년간 상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인건비 보조금을 받으면서 같은 기간 장애인 이동 지원 바우처 택시를 운행해 이중으로 수익을 올렸고, 법인 이사장과 시설장으로서 법인 운영과 시설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개인 영리 활동을 병행해 법인 운영에 차질을 빚었으며 이 과정에서 보조금 등 공적 재정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관련 근무기록과 택시운행내역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연상 기자

화순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추락사

부부싸움 중 아내 살해 60대 구속 송치

화순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전남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 등에 따르면 전남 오전 7시52분께 화순군 도암면 한 식품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A(60대)씨가 약 5m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했다. A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A씨의 추락과 관련, 안전모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노동청도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재영 기자

부부싸움 중 아내를 살해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3일 자택에서 흉기로 아내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보성 한 아산에서 음독한 상태로 긴급제포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았다. /서형우 기자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리 품질

전 브랜드 할인 판매!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고블 G-07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장인의 기술

오랜기술과노하루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ASTRO

최고의 명품 파크골프채
아스트로



소비자가격 ₩ 1,180,000
헤드 단종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정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소비자가격 ₩ 1,380,000
헤드 단종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2g (±10g), 샤프트 50g



소비자가격 ₩ 800,000
헤드 단종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정90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